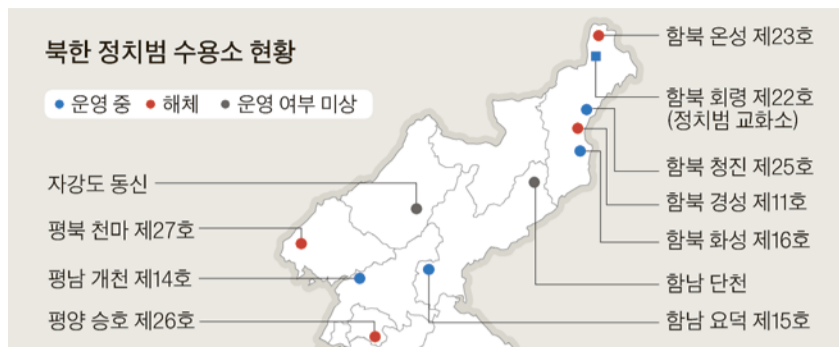


“김정일표창 받았지만 남한사람 만났다고 간첩 딱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주요 수감자 명단 *나이는 수감 당시 자료: 인권위 『북한 인권 침해 사례집』

이름	나이	수감연도	직업	수감 이유
안창남	51	1999.11	중앙인민위원회 법무부장	화교와 거래하다 보위사령부에 적발
심철호	42	2001.9	체신성 부상	국가보위부 도청담당에게 말실수했다가 궤범죄
김병남	66	2000.2	양강도당 조직비서	당 권위 훼손(뇌물 수수 혐의)
심은택	65	2000.11	양강도 도검찰소장	당 권위 훼손(뇌물 수수 혐의)
김윤식	52	2000.2	평양 중구역 검찰소장	평양 평천구역 보위부장 사건 연루(정치보복)
염정재	52	2000.2	평양 모란봉 구역 검찰소장	평양 평천구역 보위부장 사건 연루(정치보복)
조석천	65	2001.9	국가보위부 철도성 보위부장	최문덕 날조사건 연루
김동호	64	2000.9	인민무력부 은덕총국국장	김정일의 말 거역한 혐의
한명철	58	2004.5	인민보안성 국장	당 권위 훼손
서춘보	55	2002.8	국가보위부 12국 과장	국가기밀 누설

탈북 정광일씨가 겪은 북 수용소

국가인권위의 『북한 인권 침해 사례집』에는 탈북자 등 북한 내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60여 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생생하게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엔 8개 북한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확인된 278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공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600명 안팎의 수감자 명단을 수집했지만 검증은 거쳐 사실로 확인된 278명만을 추려 사례집에 실었다”고 밝혔다.

탈북자 출신 정광일(49)씨는 수감자 명단 278명 중 187명분의 자료를 제공했다. 정씨는 “2003년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도착한 2004년부터 5년에 걸쳐 명단을 만들었다”며 “처음에는 기억을 더듬어 작성해 나갔다가 헛갈리는 부분은 나중에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을 통해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0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함경북도 15호 정치수용소(요덕수용소)에 수감됐었다. 중국 엔벤(延邊)에서 무역업을 하



정광일씨

업무 때문에 남한 사람과 한 차례 접촉한 게 화근이었다. 97년 70만 달러의 외화를 벌여 김정일에게 표창도 받았던 그였지만 하루아침에 간첩 혐의를 받게 됐다. 북한 사회에 환멸을 느낀 정

관급인 심철호(53) 체신성 부상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정씨와 같은 반(작업조) 소속이었다. “고위급 간부들은 대개 배가 불룩한 상태로 들어오지만 1개월 남짓이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정씨의 전언이다.

그는 “고위급 간부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대체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눈 밖에 나서였다”고 설명했다. 똑같은 뇌물수수라도 김 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당 권위 훼손’이 될 경우만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 뇌물수수자는 남한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교화소에 보내진다. 정씨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에서 완전히 매장하거나 아니면 김 위원장이 길들이려고 보내는 곳”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북한 내부의 사정이 남한 사회 입맛에 맞게 왜곡돼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인권에 대해 가감 없이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엔벤서 무역업 70만 달러 벌어 사업상 한 차례 접촉한 게 화근 수용소에서 석방된 직후 탈북 인권위에 수감자 187명 명단 제공

씨는 수용소에서 석방된 직후 탈북했다. 정씨는 “밖에서 아무리 고위직에 있어도 요덕에 들어오는 순간 밑바닥”이라고 말했다. 수감 당시 남한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안창남(64) 중앙인민위원회 법무부장, 차

더 큰 세상으로 통하는 문 - **신문대학교**

2012학년도 하반기 교수 초빙

- 지원서 인터넷 접수기간 : 2012. 5. 1(화) ~ 5. 11(금)
- 초빙분야 및 지원방법 : 신규교원 임용시스템 (<http://faculty.sunmoon.ac.kr>) 공지사항 참조
- 전임교원 : 사각디자인학과(뉴미디어디자인) IT경영학과(회계학/세무회계) 국제경제통상학부(경제학) 간호학과(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디스플레이)
-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단(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

336-708 충남 아산시 당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선문대학교 교수지원팀 (041)530-2132 · 2136 E-mail: choik@sunmoon.ac.kr

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안 해”

우근민 제주지사 인터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기본입장은. “안보 차원의 국가이익과 크루즈관광산업 차원의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책사업이라고 본다. 최대 15만t의 크루즈선 2척도 기항할 수 있는 복합항으로 건설한다고 도민에게 약속한 것(민항시설)을 지켜달라는 것이지 해군기지사업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제주CBS가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도민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크루즈선 입출항 검증에 60.8%가 찬성하고, 18.5%가 반대했다. 강정마을 해안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중심 52.2%, 해군기지 중심 14.7%의 답이 나왔다. 둘 다 반대하는 사람은 20%였다.”

-그래도 반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대 단체도 민군복합항이란 검증이 공정하게 이뤄지면 제주도청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준다면 반대 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크루즈 선박 입출항에 문제가 있나. “입출항 가능성이 아니라 안전한 입출항이 중요하다. 크루즈선들이 기항을 회피하면 민항은 이름뿐이고, 당초 해군이 기획한 대로 군항에 그친다. 지난해 9월 민간 전문가들이 해군의 1차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15만t급 크루즈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측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자 2차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실시했다. 그러나 사실상 해군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15만t급 크루즈선이 그렇게 자주 올까. “퀵메리 2호가 2009년부터 계속 아시아 지역을 운항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항구가 없어 그냥 지나가고 있다. 우리도 시설이 되면 2000~3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이혜석 기자 lhsaa@joongang.co.kr

15만t급 크루즈 선박 안전한 입출항 검증되면 기지 건설 적극 지원

이런 시선에 대해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 역시 필요한 안보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15만t급 크루즈 선박도 안전 운항이 가능한 민·군복합형이라고 검증되면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보상 성격의 주변 지역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1조771억원의 사업을 10개년 계획으로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25일 도청 집무실에서 우 지사를 만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제주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구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항	해군기지
위치/기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2007~15년	
면적	4만㎡	48만7000㎡
사업비	534억원	9776억원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해군본부

자료:제주특별자치도